

대한민국 대표 국악등용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음 7월 11일) 제18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대표 국악등용문 전주대사습놀이 8일부터 한옥마을서 개최

‘다시 또, 열쑈!’ ... 위기를 넘어 성공으로

심사위원 추천위·선정위원회 별도로 구성
관소리명창부 본선에 청중평가단 평가 도입
출전자들 입상 시 타인 교부 않도록 서약서 작성

대한민국 대표 국악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는 이번 전국대회 슬로건을 ‘다시 또, 열쑈!’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위기에 처한 전주 대사습놀이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대회를 만들겠다는 조직위의 의지이다.

올해 대사습놀이의 개선된 심사제도에는 심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경연 부문별 2인 내외의 추천위원들이 각 경연 부문별 5배수 내외로 심사위원 후보들을 추천하면, 추천된 후보 명단에서 심사위원 선정위원회가 2배수 내외로 유과별 분류를 기하면서 우선순위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은 경연부문별로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혹여 있을 불공정 행위를 차단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 선정 시 경연 출전자들의 직접제자 및 6촌 이내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에서 원천배제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개선 방식은 향후에도 기준이 되도록 백서로 기록해서 남길 예정이다.

특히 전주 대사습놀이 최초로 관소리명창부 본선에 청중평가단 평가를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참가자의 대중성도 함께 심사하도록 했다.

청중평가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과 애호가 그룹으로 나눠 각각 최대 70명 정도까지 공모하며, 채점 방식은 전문 심사단의 평점을 최대 70점까지 하고, 청중평가단 평점은 최대 30점까지 해서 두 점수를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하며, 1위 점수가 90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장원으로 선정하지 않고 차등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출전자들은 입상 시 수령한 상금을 사후 어떤 명목으로도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주최 측에서는 곧바로 해당인의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주대사습놀이에는 경연대회 외에도 개막축하공연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먼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 기잡놀이가 9월 8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객사~경기전 거리에서 치러지고, 오후 7시부터 경기전 광장 주무대에서는 시민공연 기사습제와 개막축하공연 ‘다시 또 열쑈!’가 9시까지 이어진다.

또한, 전문 예인을 배제한 순수 아마추어라면 누구나 참가하여 국악분야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특별 경연 프로그램 ‘열지 척!’을 9일과 10일 오후 5시부터 경기전광장 주무대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선생님과 꼬마 소리꾼의 소리공부방, 소리체험, 타악체험, 춤체험 등 남녀노소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면서 호흡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병근 조직위원장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최고의 기량을 뽐내는 대한민국 대표 국악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제도를 중점적으로 혁신해 실력 외의 다른 조건에 의해 수상자가 결정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재용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1일 도청기자실에서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관련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새만금의 발전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세계 최대규모 항구적 고품격 야영장 건설”

송하진 도지사,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성공 포부 밝혀
“스카우트센터 비교적 규모있게 지어 역사 전시할 것”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을 “항구적인 야영장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어느 때나 야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항상 야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스카우트 센터를 비교적 규모 있게 지어서 스카우트의 모든 정신과 역사 전시, 야영객들이 와서 맨 몸으로 와서 장비를 빌려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지사는 전북도 전역과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문화, 관광, 생태 측면과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준비, 야영자체뿐 아니라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는 코스를 만들어 대회 성공은 물론 새만금 조기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애초 잼버리대회 유치에 나섰던 것은 오로지 전북발전을 위한 일념에서였다”며, “유럽보다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특포활동을 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지난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폴란드 그단스크를 누르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김진성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 수단 총동원”

문 대통령, 복지부 정책토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 8000명이다. 이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작년에 1.17명이었는데 작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보육·교육·주거·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 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4면 - 전주출연기관 경영평가 방식	6면 - 추석과일 출하 농가의 관리기술은?	16면 - 달리진 익산 서부권역
----------	---------------------	-------------------------	-------------------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TAX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유망사업 등을 알린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가입 문의
063-214-6609
www.8899.or.kr